

http://dx.doi.org/10.17703/JCCT.2018.4.2.107

JCCT 2018-5-14

부와 모의 갈등해결양식이 청소년의 욕설사용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역할

The Influence of Mother's and Father's Conflict Resolution Styles on Adolescents' Use of Swear Words: The Mediating Role of Aggression

이보현*, 이은희**

Bohyun Lee*, Eunhee Lee**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와의 갈등해결양식(공격적·절충적)이 청소년의 욕설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부와 모와의 갈등해결양식과 청소년의 욕설사용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G도의 3개시 소재 6개 학교 중학생 5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77부를 선정하여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와의 공격적 갈등해결양식이 청소년의 욕설사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와 모와의 갈등해결양식과 청소년의 욕설사용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부와 모의 공격적 갈등해결양식과 욕설사용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과 부모사이의 갈등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공격성을 축적시켜서 욕설사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과 부와 모와의 공격적 갈등해결양식이 공격성을 상승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욕설사용을 촉발함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이 결과가 현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연관 될 수 있는 청소년 자녀의 욕설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공격적 갈등해결양식, 절충적 갈등해결양식, 욕설사용, 공격성

Abstract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mother's and father's conflict resolution styles(aggressive and compromising) on adolescents' use of swear words.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whether aggression has a mediated effect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nd father's conflict resolution styles and their children's use of swear words. To this end, self-report type of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570 students who attend at 6 different middle schools located in Gyeongnam Province. To the exclusion of incomplete and insincere answers, 477 were selected as the raw data of the research. The summarization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aggressive type of conflict resolution style with mothers has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tudents' use of swear words. When the conflict resolution style with mothers gets aggressive, their children's use of swear word increases accordingly. Second, it is confirmed that aggression has a mediated effect when it comes to teenagers' use of swear words triggered by mother's aggressive conflict resolution styles and father's aggressive conflict resolution styles. Therefore, if the conflict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is not appropriately resolved, the children's aggression accumulates and thereby children's use of swear words increases.

Key words : Conflict Resolution Style(Aggressive, Compromising), Aggression, Use of Swear Words

*정회원, 경남대학교 대학원 상담 및 임상심리전공 박사과정(제1저자)Received: February 16, 2018 / Revised: March 18, 2018

**정회원, 경남대학교 심리학과(교신저자)

Accepted: April 9, 2018

접수일: 2018년 2월 16일, 수정완료일: 2018년 3월 18일

*Corresponding Author: ehlee@kyungnam.ac.k

게재확정일: 2018년 4월 9일

Dept. of Psychhology, Kyungnam University, Korea

1. 서론

과거의 청소년들은 은어와 별명 등을 통해 자신들만의 동질감을 형성하였고,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의 표현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1]. 그러나 현재 우리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하고 있으며[2], 심지어 3분가량의 대화에서 전체 화자의 약 95%가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4]. 사회 전체가 무한경쟁을 부추기면서 소수의 성공자를 만드는 구조 안에서 청소년들은 욕설의 의미도 모른 채 그들 생활의 일부로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5]. 이러한 욕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욕설의 지나친 사용은 청소년의 정서를 메마르게 하고 성격 또한 거칠어지게 한다[5]. 말이 거칠면 행동도 거칠고 과격해지기 쉽다. 다시 말해 욕설이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언어폭력이 '6.3건/1000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지속되는 욕설이 결국에는 피해학생의 자살로 이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준홍 연구원의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과 언어 환경이 욕설 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7]에 따르면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공공생활에서 호혜규범을 위반하는 사람일수록 욕설의 정도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3] 있는 중학생들의 욕설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근본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시점인 것이다.

청소년의 욕설 사용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욕설 사용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많은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8, 9, 10, 11].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욕설을 많이 하는 학생이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8], 청소년의 욕설 사용 정도는 부모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11], 부모의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가정 내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비속어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3]. 가정의 소득이 낮을수록,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화목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욕설을 더 많이 사용하는 등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12].

이러한 욕설사용의 가장 큰 원인은 '상대방에 대한 화'였으며, 중학생들은 '엄이'(엄마), '담탱이'(담임)처럼 부모와 교사를 적대적으로 보는 은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Rosenthal(1962: 김자영, 2012[13]에서 재인용)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란 청소년은 부모에 대해 적대감정을 가지게 되고, 내면화된 갈등과 고통을 많이 지니게 되어 공격성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의 공격성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문제적일수록 높다고 한 박인경[1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미 많은 연구들[15, 16, 17, 18]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인격형성과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수용적일 때 자녀들의 인간관계 및 행동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반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통제적이고 지시적일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적대감이 욕설 사용의 원인이 됨을 시사한다.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과 공격적 행동의 관계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집단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집단에 비해 공격적 행동이 적었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 횟수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심리적 통제를 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공격적인 행동의 모델이 될 뿐 아니라, 자녀의 욕구를 좌절시켜 공격행동을 유발하였다[20].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따른 자녀의 공격성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녀의 공격성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17].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난형 의사소통이 남아의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비난형 의사소통이 여아의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1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현저히 높아졌다[20].

이러한 문제형 대화의 지속은 중학생 자녀들의 마음에 좌절을 쌓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과 모순적인 메시지를 사용하게 하며, 비판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안선례[12]는 청소년 중 어머니와 하루 30분 미만으로 대화하는 가정의 중학생 자녀가 어머니와 하루 30분 이상 대화하는 가정의 중학생 자녀보다 욕설을 더

많이 사용하며,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욕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형일수록 중학생 자녀들이 욕설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 중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중학생 자녀들이 욕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최근 들어 아버지의 영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문제적일수록 공격성이 높고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공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공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됨에 따라[21], 이에 부와 모와의 갈등해결양식이 자녀의 공격성과 각각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한 분석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좌절-공격이론[22]에서는 인간의 공격적인 행동이 좌절의 결과이며, 모든 좌절은 공격성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공격적인 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좌절과 정당성 여부를 결부시킨 연구[23]에서는 사람들이 부당한 좌절을 경험할 경우 정당한 좌절을 경험한 경우보다 더 큰 공격성을 보이게 되며, 정당한 좌절을 경험한 경우일지라도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들과 공격성의 욕구좌절가설을 종합하여 그림 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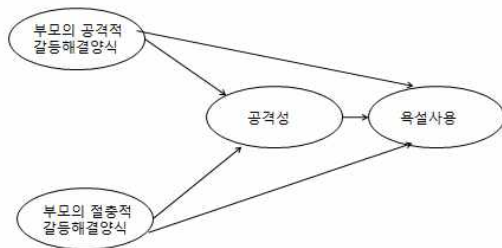


그림 1. 부와 모의 공격적 갈등해결, 청소년의 공격성 및 욕설 사용간의 가설적 구조모형

Figure 1. Hypothesized structural model relating mother's and father's conflict resolution styles, adolescents' aggression, and adolescents' use of swear words latent variables

이 모형에서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상황에서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격적 갈등해결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는 더 많은 욕구좌절을 경험하게 되어 공격성이 더 축적되어 욕설을 통하여 언어적으로 더 표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상황에서 양쪽의 욕구가 모두 충족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충적 갈등해결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는 욕구좌절을 덜 경험하게 되어 공격성이 덜 축적되어 욕설을 통하여 언어적으로 덜 표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와 모와의 갈등해결 양식이 욕설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와 모와의 갈등해결 양식과 욕설사용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II.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G도에 소재한 3개의 시지역 소재 중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당 1, 2, 3학년 1학급씩 총 18학급 570명을 대상으로 하여 담담교사의 협조를 얻어서 수업시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96명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이 중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12명을 제외시켰으며, 통계분석을 통하여 다변량 극단치로 추정되는 7명을 제외시킨 478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대상자 478명(N = 478)중에 남자가 244명(51.1%), 여자가 234명(48.9%)이었고, 1학년이 165명(34.5%), 2학년이 160명(33.47%), 3학년이 150명(32.0%)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와 모와의 갈등 해결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와 모와의 갈등해결 척도는 Rands와 Marlyn이 개발한 부부갈등해결양식 척도(Spouse's Style of Conflict Resolution)중 서희영[4]이 번안하고, 예비조사와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님과 갈등이 생겼을 때 취하는 해결 양식에 대해서 공격적(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양식 7문항과 절충적

(양자의 관심사가 모두 충족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양식 5문항, 총12문항으로 구성하고 각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가끔 그렇다'에 2점, '자주 그렇다'에 3점, '항상 그렇다'에 4점의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갈등해결양식 척도를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Cronch's α)는 부의 공격적 갈등해결 양식은 .82, 모의 공격적 갈등해결 양식은 .84이었으며, 부의 절충적 갈등해결양식은 .85, 모의 절충적 갈등해결양식은 .87로 나타났다.

2) 공격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격성 척도는 Buss와 Perry의 공격성척도를 권재환과 이은희[25]가 번안하여 사용한 29문항 사용 하였다. 신체적 공격성 9문항, 언어적 공격성 5문항, 분노 7문항, 적개심 8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형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공격성 전체 내적일치도(Cronch's α)는 .88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인 신체적 공격성은 .71, 언어적 공격성은 .76, 분노는 .69, 적개심은 .82로 나타났다.

3) 욕설사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욕설사용 척도는 욕설행동 및 욕설습관 등 두 가지 척도로 청소년의 욕설을 측정하였다. 욕설행동 척도는 김태경 외[26], 손봉희[10]를 토대로 김희화[27]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욕설사용정도를 측정하고자 수정한 척도 3문항을 사용하였다. 세 가지 문항에 대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자주 사용한다.' 5점까지의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욕설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욕설행동의 내적일치도(Cronch's α)는 .77로 나타났다. 욕설습관 척도는 욕설습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Verplanken과 Orbell[28]의 The Self-Report Habit Index(SRHI)를 번안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자와 영어교육학 석사가 영어로 된 원 문항들을 한글로 번안을 하였고, 번안된 문항들이 원문항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2인의 심리학박사가 검토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5점까지로 한 Likert척도이고 점수가 높을

수록 욕설을 습관적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욕설습관의 내적일치도(Cronch's α)는 .95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9.3과 LISREL 9.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주요 변인들 간(갈등해결양식, 공격성, 욕설사용)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와 모와의 갈등해결양식이 자녀의 공격성과, 욕설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서 학년과 성별을 통제하고 2단계에서 갈등해결양식의 하위 척도를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갈등해결양식이 욕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격성이 매개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공격성은 4개의 하위척도(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 적개심)로, 욕설사용은 2개의 하위척도(욕설행동, 욕설습관)로 구성하였고, 갈등해결양식은 단일 요인이므로 각 문항합산의 요인계수가 유사하도록 문항의 요인계수 크기에 따라 각 문항합산에 할당하여[29] 2개의 문항꾸러미를 구성한 뒤 사용하였다.

모델의 부합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부합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or None Non-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다중 통계치들을 사용하였다. 또한 부합도 지수들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지수들이 .90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반적인 기준[30]과 TLI와 CFI가 .95이상이고 RMSEA가 .05이하이면 좋은 부합도를 가진 모형, TLI와 CFI가 .90~.95이며 RMSEA가 .05~.08이면 괜찮은 부합도를 가진 모형, RMSEA가 .08~.10이면 보통 부합도를 가진 모형으로 본다라는 기준[31]에서 전반적인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1. 부, 모와의 갈등해결양식이 욕설사용에 미치는 영향

학년과 성별을 통제한 후 부, 모와의 갈등해결양식이 욕설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부와 모와의 갈등해결양식과 욕설사용과의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Table 1.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Adolescents' Use of Swear Words From Mother's and Father's Conflict Resolution Styles

단계 변인	R ²	B	SEB	β	t
1단계					
학년	.048	-.40	.61	-.03	-.65
성별		-4.81	1.00	-.22	-4.80***
2단계					
학년		-.35	.60	-.03	-.58
성별		-4.70	.98	-.21	-4.79***
부공격	.104	.28	.18	.10	1.60
모공격		.43	.17	.15	2.57*
부절충		.07	.17	.03	.40
모절충		-.15	.17	-.06	-.90

주. N = 477. *p<.05, **p<.01, ***p<.001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욕설사용 정도는 부와 모의 갈등해결양식에 의해서 5.6% 설명된다. 모의 공격적 갈등해결양식($\beta = .15, t = 4.79, p<.05$)만이 청소년의 욕설사용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상황에서 모가 공격적 갈등해결양식을 사용하게 되면 청소년 자녀의 욕설사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부와 모와의 갈등해결양식과 욕설사용에 있어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갈등해결양식 중 부와 모의 공격적 갈등해결양식만이 청소년의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어(표 2) 부와 모의 공격적 갈등해결양식과 청소년의 욕설사용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1) 모형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매우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9, N = 477) = 90.60, p<.001, TLI = .952, CFI = .969, RMSEA = .042$.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구조경로 분석결과가 아래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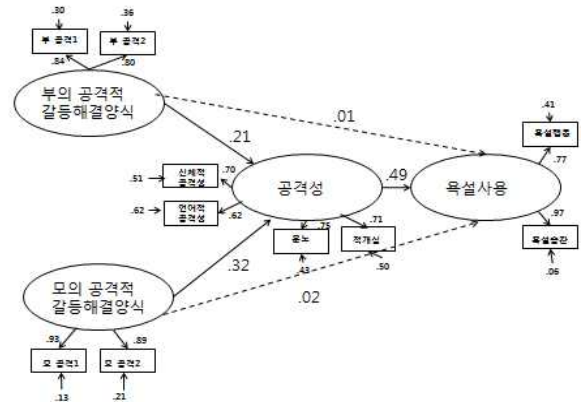


그림 2. 부와 모의 공격적 갈등해결, 청소년의 공격성 및 욕설사용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Figure 2. Standardized parameter estimates of the structural model relating mother's and father's conflict resolution styles, adolescents' aggression, and adolescents use of swear words latent variables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의 공격적 갈등해결양식과 모의 공격적 갈등해결양식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각각, $\beta = .21, t = 2.70, p<.01; \beta = .32, t = 4.17, p<.01$), 욕설사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01, t = .11, ns; \beta = .02, t = .26, ns$).

2) 부와 모의 갈등적 해결양식이 공격성을 매개로 욕설사용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확인된 경로를 중심으로 전체효과를 분해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부와 모와의 공격적 갈등해결양식, 청소년의 공격성이 청소년의 욕설사용에 미치는 간접효과

Table 2. Indirect Effects of Mother's and Father's Conflict Resolution Styles, Adolescents' aggression on Adolescents' Use of Swear Words

경로	모형추정치
부의 공격적 갈등해결양식 공격적 갈등해결양식 -> 공격성->욕설사용	.103
모의 공격적갈등해결양식 공격적 갈등해결양식 -> 공격성->욕설사용	.157
모든 경로들의 순효과	.260

부의 공격적 갈등해결양식은 청소년 자녀의 욕설사용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공격성을 상승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욕설사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21×.49 =.10, $t = 2.53, p < .05$]. 모의 공격적 갈등해결양식은 청소년 자녀의 욕설사용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공격성을 상승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욕설사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32×.49 =.16, $t = 3.63, p < .01$]. 결국 부와 모의 공격적 갈등해결양식은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자녀의 욕설사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갈등해결양식이 청소년의 욕설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부와 모의 갈등해결양식과 청소년의 욕설사용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공격적 갈등해결양식이 중학생 자녀의 욕설사용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갈등해결양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욕설환경 중 어머니와 하루 30분미만으로 대화하는 가정의 중학생 자녀가 어머니와 하루 30분 이상 대화하는 가정의 중학생 자녀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12] 및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더 중요한가 보는 연구결과들과 [32, 33]과 유사하다.

청소년 시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와의 질충형 갈등해결양식을 통하여 자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의사를 수용하는 개방적 의사소통 양육태도로 나갈 수 있도록 어머니의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로 자녀와의 갈등해결을 줄여 서로 의사소통을 해나가면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언어폭력의 주원인인 욕설사용도 줄어 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각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로 화목한 가정 분위기 만들기에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부와 모와의 공격적 갈등해결양식과 자녀의 욕설사용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상황에서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격적 갈등해결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는 더 많은 욕구좌절을 경험하게 되어 공격성이 더 축적되어 욕설을 통하여 언어적으로 더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좌절-공격이론[22] 및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욕구를 좌절시켜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0]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정에서의 부모의 갈등해결양식이 직접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욕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공격성을 축적시켜서 간접적으로 욕설사용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결과는 학교상담현장에서 과다한 욕설을 통하여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갈등원인은 부모-자녀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욕구좌절을 통한 공격성의 증가라는 심리적 기제를 통하여 욕설로 표현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공격성을 약화시키는 상담프로그램(예, 분노조절훈련)을 통하여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지며,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시키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위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남의 일부 중학교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의 표본들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님과의 갈등해결양식정도를 자기보고 형태로 측정하였다. 물론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님과의 갈등해결양식 정도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응답하는 것보다 주관적으로 더 정확한 청소년 자신의 지각을 반영했을 것으로 본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님과의 갈등해결양식의

정도를 무의식적으로 감추기 위해 부모님에 대한 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청소년 자녀의 보고 뿐 만 아니라 부모님의 보고도 같이 보다 다차원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면 연구결과와 타당성이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이 점을 감안하여 측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와 모와의 갈등해결 양식이라는 두 가지 가정 환경적 요인만을 살펴보았는데 다양한 가정 환경적 요인들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해결양식이 자녀의 공격성과 욕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고 나아가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해결양식과 욕설사용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통해 청소년기 문제행동이나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욕설사용에 대한 갈등해결양식과 공격성의 중요성을 본 연구에서 보여 주었다. 특히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연관 될 수 있는 청소년 자녀의 욕설사용과 공격성을 줄일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References

[1] G. S. A. Byun, "A study on computer communication langu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04.

[2] D. H. Heo,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use of teenagers' abusive words and moral educational methods to reme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3.

[3] K. H. Jang, "A research on adolescence language use",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2010.

[4] J. H. So, "The analysis of the impulse and self-concept and the frequency of adolescents' usage of sla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2010.

[5] K. N. Back, "On-going status on juveniles' using languages and a study on ways of improvement: Focusing on internet jargon and living languag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01.

[6] The Dong-A Ilbo, "The results of the first

school violence survey...Seven out of 10 students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http://news.donga.com/3/all/20171011/86694715/2#cid=345c25040ef8b7d8dc2e5f407a950f0dp>, (2017.10.11.).

[7] J. H. Kim, "The effects of 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and linguistic environment on swearing amongst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3, No. 4, pp. 159-188, 2012.

[8] E. S. Park, "A Study on the daily stress and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according to the actual usage of abusive use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frequency of swear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11.

[9] J. H. So, "The analysis of the impulse and self-concept and the frequency of adolescents' usage of sla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2010.

[10] B. H. Son, "Difference in self-esteem, stress and depression according to actual condition and frequency of using abusive languages i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0.

[11] H. Y. Oh, "The Relationships among use of offensive words, peer approval needs, self-acceptance,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University, 2012.

[12] S. L. An, "The relationship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marital conflict on the use of abusive language in middle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University, 2013.

[13] J. Y. Kim, "The effects of adolescent's self-control and maternal behavior on adolescent's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2.

[14] I. K. Park, "Adolescents' aggression and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according to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0.

[15] H. J.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ommunication style perceived by child and the child's empathy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4.

[16] Y. M. S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ommunication patterns of parents and perceived emotional competence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Centered o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09.

- [17] C. Y. So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ggression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4.
- [18] S. R. Ha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s violent tendencies, and exposure to school violence, and their co-relationship by gen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7.
- [19] Y. K. Kim, "The relationship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patterns to academic self-concept and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 University Education, 1992.
- [20] M. S. Chon, "The effects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elf-control an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2.
- [21] Y. S. Park, Y. C. Kim, "Influence of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school violence : Comparative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and adolescents under institutional supervision",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Vol. 15, No. 2, pp. 25-52, 2001.
- [22] C. A. Anderson, B. J. Bushman,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3, pp. 27-51, February 2002.
- [23] J. Dill, C. A. Anderson, "Effects of the justified and unjustified frustration on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Vol. 21, No. 5, pp. 359-369, 1995.
- [24] H. Y. Seo, "The Influence of perceived homeroom teacher's conflict resolution styles on classroom climate and class healthiness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2010.
- [25] J. H. Kwon, E. H. Lee, "The predicting game addiction in adolescents: An application of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0, No. 1, pp. 95-112, 2005.
- [26] T. K. Kim, K. H. Jang, J. S. Kim, S. H. Lee, P. Y. Lee, H. J. Jun, "A research on adolescents' language use",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Vol. 19, No. 1, pp. 23-58, 2011.
- [27] H. H. Kim, "The mediating effect of swearing habit to relationships between abusive behavior and bullying in early adolescenc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Vol. 11, No. 2, pp. 83-91, 2013.
- [28] B. Verplanken, S. Orbell, "Reflections on past behavior: A self-report index of habit strength", *Journal of Social Applied Psychology*, Vol. 33, No. 6, pp. 1313-1330, May 2003.
- [29] T. D. Little, W. A. Cunningham, G. Shahar, K. F. Widaman,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9, No. 2, pp. 151-173, 2005.
- [30] G. M. Maruyama, "Basic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1998.
- [31] S. H. Ho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9, No. 1, pp. 161-177, 2000.
- [32] J. B.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adverse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1994.
- [33] E. J. Shin, "The effects mother-adolescent's communication typ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conflict disclosures and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997.
- [34] Sin-Bok Lee, Jun-Hwan Moon, C. Park, "A study on spontaneous improvement plan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based on self-discrimination theor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3, No. 4, pp. 43-52, 2017.